

“예수님이 놀란 믿음”

마태복음 8:5-13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전체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때 한 백부장이 나아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몹시 괴로워한다며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이 나올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리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 권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은, 이 백부장이 권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어떤 힘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곧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 순간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

달리는 자동차는 힘이 있습니다. 커다란 트럭도 빠른 속도로 달리면 물리적으로 멈추어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통 경찰은 비록 그가 물리적으로 트럭을 세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호루라기 하나로 달리는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행 3:6)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비록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권세만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 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 8:6)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신후 내려 오시다가 나병환자가 찾아오자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나병환자는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 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의 종이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 장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 그는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 8:8)

믿음에는 3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1. 지성적인 믿음

사리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2. 맹목적인 믿음

지식은 없고 아무런 이유와 목적없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이것 역시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3. 말씀에 의지한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열정적이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기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고 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는 눈 앞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그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령관으로 와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종의 질병을 위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데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8 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토대로,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병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었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내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3. 우리가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에게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백부장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중보기도의 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집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신뢰 등)